

‘경영난 허덕’ 광산 유스호스텔 결국 문닫나

21억여원 투입 불구 외곽위치 접근성 떨어져 이용객 급감

위탁기관, 1년도 못채우고 계약해지 요청…대책 마련 절실

수십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관한 광주시의 유일한 청소년 숙박시설이 17년 만에 애물단지로 전락,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광산구는 지난 1996년 광산구 송학동 38-3번지 일대 6926㎡의 부지에 총 사업비 21억1000만원을 들여 광주시에서 유일한 청소년 숙박시설인 ‘광산구 유스호스텔’을 건립했다. ‘광산구 유스호스텔’은 건립 후 그 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돼 왔으나 도심을 벗어난 시 외곽에 위치해 있다 보니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매년 갈수록 이용객들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인 ‘광산구 유스호스텔’을 건립했다. ‘광산구 유스호스텔’은 건립 후 그 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돼 왔으나 도심을 벗어난 시 외곽에 위치해 있다 보니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매년 갈수록 이용객들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에는 2만2406명의 청소년이 이 시설을 이용했지만 2011년에는 1만9480명으로 줄고 2012년도에는 급기야 1068명으로 이 도심을 벗어난 시 외곽에 위치해 있다 보니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매년 갈수록 이용객들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3월 ‘광산구 유스호스텔’ 위탁을 맡은 G법인은 3년 위탁기간 가운데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지난 1월 광산구에 위탁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며, 현재 이 시설은 문을 닫은 상태로 방치돼 있다.

위탁을 맡은 G법인 관리실장은 “위탁공모 당시 이용자가 얼마나 될지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며 “이용객이 줄면서 수입도 크게 감소, 노후한 보일러 등 시설을 교체마저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여서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G법인은 이 같은 경영 압박으로 20일 현재 해당 시설의 전기요금 450만 원을 미납했으며, 일용직 인건비 80여만원도 밀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

광산구 관계자는 “4회에 걸친 공개모집을 통해 어렵게 위탁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 해지를 요청해 난감하다”며 “운영상 악순환이 예상되는 만큼 유스호스텔의 문을 아예 닫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 유스호스텔’이 경영난을 겪게 되자 광산구의회는 지난 5일 ‘광산구 유스호스텔 정상화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는 등 광주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광산구 송학동에 건립된 광주 유일의 청소년 숙박시설 ‘광산구 유스호스텔’이 이용객 급감에 따른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폐업위기에 직면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환경오염물질 배출

식품업체 등 10곳 적발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일 최근 광주시, 전남도와 협동단속을 벌여 영산강·섬진강에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업소 10곳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폐수를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보내지 않고 중간에 배출한 식품 가공업체는 조업정지 10일을 받게 됐다.

폐기물을 보관하다 침출수를 유출한 비료생산업체 2곳은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고 가축 분뇨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축사 1곳은 벌금을 물게 됐다.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보관한 섬유제조업체 등 6곳에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보수단체, 전교조와 전면전 선포

70여 단체 “좌편향 교육 추방” 범국민운동

전교조 “근거없는 비방땐 법적조치” 경고

보수성향 70여개 교육·시민단체

다.

법국민운동은 “전교조는 법외노조인데도 고용노동부가 수년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용부장관과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국민운동은 “그동안 학부모나 교장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해오던 전교조 추방 노력을 체계화하겠다”며 “더는 전교조가 우리 교육을 망가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라며 탈퇴증용 메일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2심 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했다”며 “앞으로 근거 없이 전교조를 비방할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2008년 전교조 척결을 목표로 결성된 ‘반국가교육혁결국민운동본부’도 전교조에 대한 악의적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및 무고죄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라며 “전교조 추방 법국민운동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들이 간판만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서구청 ‘직소민원실’ 주민 호응

옆집과 분쟁 등 2년만에 1800여건 처리

광주시 서구청이 주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2년 전부터 설치해 운영중인 직소 민원실이 주민과 밀착한 행정 처리로 호응을 얻고 있다.

서구청은 20일 구청장이 주민 민원을 청취, 직접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한 직소 민원실이 2년 동안 1800여건을 접수받아 처리했다고 밝혔다.

서구청은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데,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 민원을 모두 접수받아 처리해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원 종류도 옆집과의 분쟁, 공부원의 불친절, 취업 문제 등 다양하게 접수됐다.

김종석 서구청장은 “지금까지의 행정 관행을 탈피해 주민들이 만족하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교류 흡족이라며 다양한 반론을 제기하는 등 한일 역사학계에서 논쟁을 벌여왔다.

최근에는 백제시대에 일본에서 건너온 용병의 무덤이라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무덤 형태가 한반도 남부의 활발했던 대외 교류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방후원분은 영암과 함평, 광주, 해남 등 영산강 유역에서만 13기가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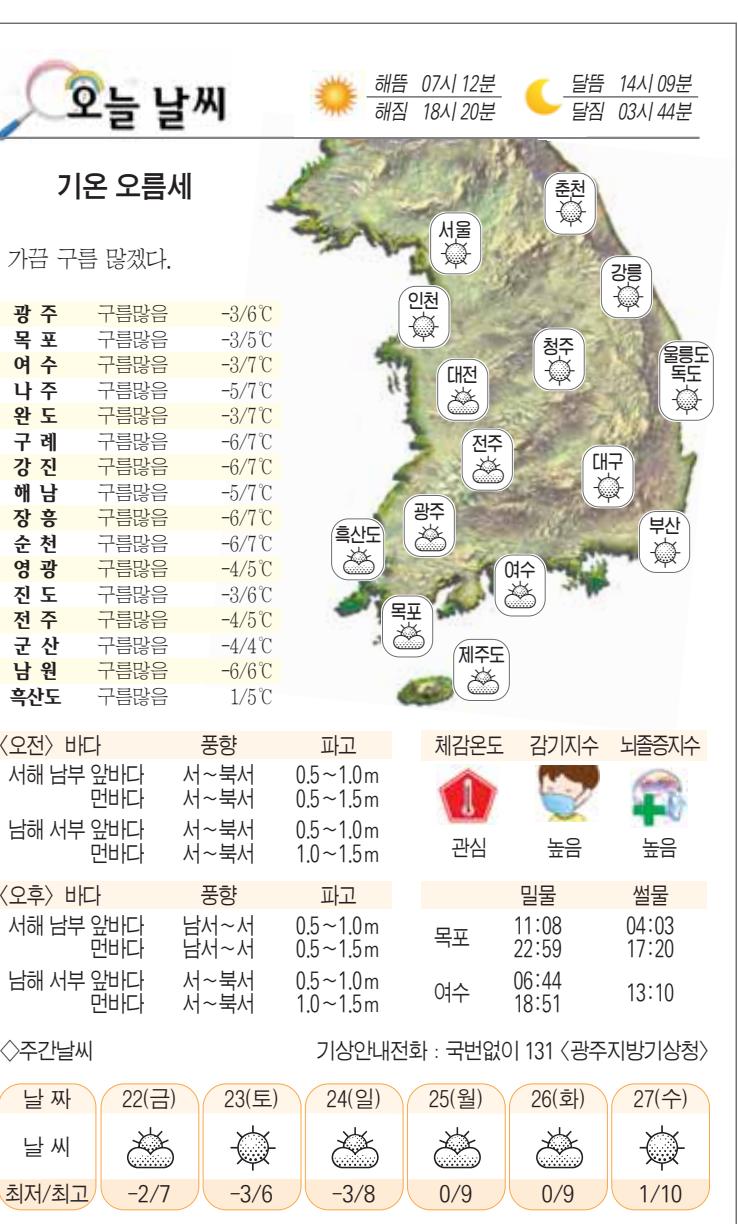
이번에 발견된 강진 영파리 고분은 서기산(海拔 405m)에서 남동쪽으로 뻗은 구릉의 말단부에 해당하는 해발 50m 내외의 계곡 사이(곡간지)에 위치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강진서도 고대 무덤

‘전방후원분’ 발견

분포 범위 확대…고대사 연구 큰 전기 될 듯



경축 백운동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 인가완료!

2차조합원 150세대 모집중!!

믿을 수 있는 시공! 현대엔씨(주)
안전한 자금관리 한국자산신탁(주)
고품격 단지배치 실속형 설계
교통, 학군 생활, 자연적인 풍경
77㎡~123세대 84㎡ A~154세대 84㎡ B~250세대

모집/문의 1899-1334

시행사: 백운동지역주택조합 · 시공사: 현대엔씨(주)
자금관리: 한국자산신탁(주) · 업무대행: (주)제오산업개발

2013
광신대학교
평생교육 PROGRAM
수강생모집

3월 중 개강

여성가족부 인정 2013-1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3년 3월 중 개강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④ 이후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예쁜글씨 POP & 풋아트
■ 천연비누 & 화장품 만들기
■ 리더 스피치 & 프레젠테이션
■ 스토리텔링과 어린이독서지도
■ 점핑클레이
■ 성격분석 도형상담
■ 노인심리상담사
■ 여성가족부 인정 2013-1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 생활한방교육원(산야초 응용관리사)
■ 모집기간: ~ 2013. 3. 8(금)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